강진 김영일 · 곡성 김광휘 · 구례 박진호 · 무안 이기성 · 보성 안구일 · 순천 김승호 · 순천 김종영 · 여수 김석철

'제44회 보성군민의 날' 행사 개최

오는 10일 보성체육공원 일원 군민 화합·소통의 장 마련

새천년 기념 군민헌장·재정명천년 슬로건·엠블럼 선포

보성군은 오는 10일 보성체육공원 일원에서 '제44회 보성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해 군민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행사는 보성군민의날 추진위원회(위원장 한동근) 주최·주관으로 보성체육공원에서 읍면별 입장식, 기념식, 재정명(再定名) 천년기념 선포식 순으로 진행되며, 다향체육관에서 기념공연, 경품추첨 등을 추진한다.

읍면별 특색과 멋을 반영한 입장식을 시작으로 기념식에서는 보성군 자주재원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골드디움(주) 임성자 대표이사에게 '보성군민의 상'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보성군의 지난 천년의 역사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미래의 도약을 위해 시대에 맞게 새롭게 마련된 군민헌장, 재정명(再定名)천년 슬로건, 엠블럼 등을 선포하는 재정명(再定名) 천년기념 선포식을 갖는다.

또한, 큰공 옮기기, 통발 공넣기 등 군민 대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화합경기와 단체줄넘기, 윷놀이, 게이트볼 퍼팅, 투호 등 체육행사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가수 홍진영 등 다수 공연팀이 출현하는 기념공연을 비롯해 저녁 7시 30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특별공연인 '효 한마당'을 준비해 군민이 편하게 쉬며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했다.

한동근 위원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으니 많은 군민들이 편안한 휴식과 즐거움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현호 군수 권한대행은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군민이 편안하게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천년동안 이어져 온 보성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앞으로도 계승·발전해 나갈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장성 홍길동축제'가 확 달라진다

봄꽃 축제와 결합 이미지 변신…다양한 프로그램 눈길

조선시대 실존인물 홍길동을 기리는 '장성 홍길동축제'가 확 달라진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는다. 장성군은 18일부터 20일까지 황룡강변과 홍길동테마파크에서 '제19회 장성 홍길동축제'를 개최한다.

'장성 홍길동축제'는 우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끈다. 주 무대인 공설운동장과 홍길동테마파크에서 '뽀빠이와 함께하는 옐로우 콘서트', '옐로우 힐링토크', '홍길동 스마트 퀴즈쇼', '메뚜기 잡기 체험', '옐로우 화관 만들기', '서바이벌 활쏘기 게임'을 비롯해 13종의 전시, 22종의 체험전, 8종의 전시가 열린다. 다만 축제 첫날인 18일의 공연 프로그램은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추모 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해 둘째 날 이후로 옮기고 가족영화 상영으로 대체해 차분한 분위기에서 축제를 치를 계획이다.

가족과 함께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바이킹, 토마스 기차, 수상자전거 등 10종의 놀이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이 밖에 장성군 농·특산물 판매대와 향토음식점을 운영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모을 예정이다.

다양한 공연·전시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장성 홍길동축제'가 주목을 모으는 이유는 봄꽃 축제와 결합해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다는 데 있다.

장성군은 지난해 100만명의 관람객을 모으며 화제를 모은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의 무대인 황룡강변에 꽃양귀비, 수레국화 등을 식재했다. 제2황룡교에서 황미르랜드까지 약 10만5,000㎡(약 3만1760평)에 이르는 황룡강변이 '꽃강'으로 조성된다.

꽃양귀비는 한국에선 재배할 수 없는 양귀비와 달리 마약 성분이 없는 안전한 식물로 절세미인인 양귀비의 이름을 딴 데서 알 수 있듯이 꽃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특징이다.

구례군 치매안심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구례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난 3월에 실시한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 집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원 다목적실에서 월 2회 실시하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및 경도인지장애로 최종 진단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두근두근 뇌운동, 미술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치매예방운동 등 다양한 뇌 자극을 통해 인지 기능 증진시키고자 마련하였다.

군 관계자는 "치매환자가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산화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치매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를 위해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는 등 치매 없는 행복한 구례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치매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전문 상담사의 맞춤형 치매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례군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전남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치매 예방을 위해 운영한 건강 증진 서비스 프로그램이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구례=박진호 기자

함평군,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설치

군립미술관·파출소 등 공공장소 10개소

함평군은 지난달 30일 군립미술관, 파출소 등 공공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 10대를 확대 설치했다고 밝혔다.

심장 정지 후 4분이 경과하면 뇌손상이 시작되고 6분이 지나면 뇌사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심정지 환자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 시행과 더불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야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함평군 보건소는 이번에 파출소 5개소(함평읍, 남부, 서부, 월야면, 해보면), 면사무소 2개소(나산면, 엄다면), 군립미술관, 군립도서관, 양서파충류생태공원에 자동심장충격기 10대를 추가 설치하면서 현재 총 70대를 관리·지원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응급장비의관리)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들에게 관리지침을 배부하고, 매월 1일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토록 했으며 유효기관이 지난 건전지, 패드는 발견 즉시 교체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 스스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신안군,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 개최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증도 갯벌생태전시관 일대서

신안군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증도에서 19일~20일 이틀간 철인들의 축제 '2018 신안 전국 트라이애슬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이 주최하고 (사)대한철인3종협회와 공동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증도 갯벌생태전시관 일대에서 올림픽 코스(수영 1.5km,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로 개인전과 단체전인 릴레이 종목이 펼쳐진다.

신안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지난해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는 KTF(대한철인3종협회)시리즈로 정식 전국대회로 승격되어 550여명의 철인3종 동호인과 엘리트 선수가 함께 출전한다.

대회 부대행사로는 지역 유명 극단인 갯돌의 마당극과 사진촬영 대회, '슬로시티 보물찾기 축제'와 맞물려 머드체험과 염전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준비되어있다.

신안군은 5월 축제와 접목한 차별화된 대회를 통해 향후 국제대회까지 치룰 계획이며, 1,000여개의 섬과 12,000여㎢ 광활한 바다를 활용한 다양한 해양레포츠 산업을 활성활 시킨다는 계획이다.

영광군, 친환경 볍씨 소독 연시회

온탕소독과 석회황 체계처리시 99% 이상 키다리병 방제 효과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4월 27일 논 타작물 재배기술 교육과 연계해 100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볍씨 소독 연시회를 열었다.

볍씨 소독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키다리병 예방에 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벼잎선충, 도열병 등 본답 초기 병해충 발생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볍씨 온탕소독은 볍씨를 60℃의 물에 10분간 처리한 후 바로 건져 찬물로 식히고, 이후 2일간의 침종과 싹 틔우기를 하면 97%의 키다리병 방제 효과가 있고, 여기에 22%의 석회황을 체계처리하면 99% 이상의 키다리병 방제효과가 있다.

석회황을 이용한 볍씨 소독 순서를 요약하면, 먼저 온탕소독을 한 후 찬물에 식히고, 식힌 종자를 물 한말에 22%석회황 400㎖를 넣고 30℃에서 24시간 소독 후 세척하여, 맑은 물에 12~24시간 침종하여 싹 틔우기를 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키다리병은 소독이 매우 중요하지만 모판당 파종량이 많고 고온 육묘시 발생량이 많으니 파종량을 130g 내외로 파종하고 환기를 잘 시켜 튼튼한 모를 키워야 한다"고 전했다.

영광=서희권 기자